



보도자료

- ▶ 2005. 8. 배포
- ▶ 총 쪽 (사진없음)

- ▶ 노동부 산재보험과 주평식사무관
T E L : 503-9761~2
E-MAIL : jw1209@molab.go.kr
- ▶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국 김영준부장
T E L : 2670-0281
E-MAIL : yjkim@welco.or.kr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lab.go.kr>(최신자료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산재보험 "찾아가는 서비스" 시범실시

- 의료·재활전문가 확충, 단계별 전문적 서비스 실시 -

- 노동부(장관 김대환)와 근로복지공단(이사장 방용석)은 산재보상 업무를 현장서비스 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해
 - '05.8.8부터 6개 공단 지역본부별로 산재보상업무에 대한 "찾아가는 서비스" 시범사업을 실시한다..
- 이는 그 동안 근로복지공단의 요양·보상업무가 행정사무 중심으로 이루어져 의료·재활서비스 지원 미흡, 의료기관 관리 취약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에 따라
 - 공단의 보상업무 프로세스를 최초 요양부터 재활, 사회복귀 단계에 이르기까지 현장서비스 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한 것으로
 - 9월까지 공단의 6개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10월부터 전 지사에 시행할 계획이다

○ 산재보상업무의 “찾아가는 서비스”의 핵심은 조직·인력을 현장중심으로 개편하여 재해발생부터 요양, 재활, 사회복귀 단계까지 최적의 의료·재활서비스 제공하려는 것이다.

- 지역별 1인전담제로 운영하는 보상업무를 기능별로 전문화할 수 있도록 재해조사·현장서비스·급여지급팀으로 구분·운영하고
- 최초 재해발생시 사업주·근로자 방문 등 재해조사를 강화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신속·공정하게 판단하고,
- 요양승인이 된 산재환자에 대해서는 현장서비스팀을 보상업무 경력자·간호사·재활상담사(공단 상근자문의사도 참여)로 구성, 산재근로자를 직접 상담하여 상병상태·치료기간 등에 따라 의료상담, 재활·직장복귀 지원 서비스를 해 나갈 예정이다.

※ 간호사 120명(현 69명), 재활상담사 37명(현 110명) 등 현장서비스 인력 252명 증원

-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 적정성 등을 수시로 평가하여 적정진료를 하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.

< 별첨1 >

산재보상업무 조직개편

□ 지역본부·지사의 보상부 조직개편

지역별·개인전담제 → 전문직 중심 기능별 팀 전담제



《변 경 전》	《변 경 후》
지역별 담당자 1인이 보상업무 전 과정 처리	업무기능별 팀단위 통합서비스 제공
1개 부단위 조직	3개팀으로 재편 재해조사·현장서비스·급여지급팀

□ 팀별 주요기능 및 담당업무

구분	재해조사팀	현장서비스팀	급여지급팀
주요 기능	업무상 재해 판단	현장서비스 제공	보험급여 지급
단위 업무	· 재해조사 · 요양신청서 처리 · 사망사건 처리	· 의료지원서비스 제공 · 재활상담 및 사례관리 · 주치의 및 사업주면담 · 의료기관 관리	· 보험급여 지급 · 장해심사 및 보상
팀원 구성	일반직 ※ 의료직 지원 31.3%	일반직·의료직· 재활상담직 합동팀 37.2%	일반직 31.6%